

AUTHOR 이요갑

TITLE 칼뱅의 성격과 한국교회

IN 기독교사상

(5. 2009): 22-31

칼뱅의 성격과 한국교회



이오걸 그리스도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올해는 칼뱅 출생 500주년을 맞는 해이다. 한 인간의 생애나 사상이 500년간이나, 그것도 한 지역이나 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는 일은 흔치 않다. 기독교 안에서 볼 때 그런 인물은 루터나 칼뱅 정도밖에는 없다. 칼뱅이 그렇게 오래 존경 받고 있는 것은 그의 전통인 개혁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크게 뿌리내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유가 그것만일까? 단지 칼뱅이 개혁교회들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칼뱅은 한 교단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교회를 넘어 사회와 문화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제네바만 보더라도, 그 도시는 유럽의 한 중소도시에 불과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을 거듭한 결과 현재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 20세기 전반 제네바의 정치가였던 알베르 피코는 “종교개혁이 제네바의 운명을 설명”해주며, “칼뱅, 위그노파명(자들의 수용), 적십자운동, 국제적인 연합기구들은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일어난 것이며, 그것들의 공통분모는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했다.

칼뱅이 오래 존경받고 있는 것은 그의 전통인 개혁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크게 뿌리내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유가 그것만일까? 단지 칼뱅이 개혁교회들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칼뱅은 한 교단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교회를 넘어 사회와 문화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또한 역사가 에밀 레오나르트는 “칼뱅은 제네바에서 개혁파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썼는데, 칼뱅이 형성한 “새 인간형”은 제네바에만 국한되지 않고, 네덜란드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와 세계 곳곳에까지 퍼져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들이 모두 칼뱅의 공적이 교회를 넘어 일반 사회와 문화에까지 미쳤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분명 16세기의 인물이었고, 그 시대적 한계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사상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를 위해 했던 시역들은 시대를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칼뱅의 출생은 기억되고, 그를 계기로 그의 사상과 교회를 되돌아봄과 동시에 현재적인 가치를 찾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2. 실천적이고 투쟁적인 칼뱅

칼뱅은 종교개혁자였다. 그는 28세인 1536년 7월 제네바에 정착한 뒤 평생 종교개혁과 제네바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그는 여전히 강력한 위협이었던 가톨릭교회와 또한 거우 성공한 종교개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수 있는 재세례파들이라는 양진영에 맞서 싸웠고, 포카를리나 불섹, 세르베투스 등과 논쟁했으며, 제네바 인에서 ‘외국인 칼뱅’과 그의 교회에 반대했던 토착시민들과 정치인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그런 대내외적 투쟁들과 함께 그는 목사로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편지를 쓰고, 저술하는 등 수많은 일에 몰혀 살았다. 그런 격무 속에서 건강을 잃은 그는, 테오도르 드 베즈의 표현을 따르면 “이 죽을 인생을 55년에서 한 달 13일 모자라는 기간을 살고서”³⁾ 1564년 5월 27일 작고했다.

칼뱅의 그런 삶을 볼 때 무엇보다 그가 실천가라는 생각이 든다. 평생 종교개혁을 위해 몸바쳐 일하고 투쟁한 사람, 한마디로 “종교개혁자 칼뱅”이다. 우리는 만

저에게서 그런 행동기적, 실천기적 모습을 발견한다. 그의 신화 속에서도, 그는 신화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는 성서와 교부들과 동시대 선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섭렵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신학을 세웠지만, 그러나 신화하는 것 자체보다는 그 신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에 근거한 참된 교회를 세우고 바른 성례전을 시행하고자 했으며, 신자들이 올바른 믿음과 삶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했다. 그런 그의 삶, 실천 혹은 행동 지향성은 그의 생애와 사상과 교회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칼뱅의 후예들인 개혁파들은 과잉행동적은 결코 아니지만, 항상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정의와 평화기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가령 프랑스 위그노들, 네덜란드의 “빈민자들(guilt/ gueux)”,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전통과 성향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히틀러치하에서 독일 교백교회운동, 군부독재와 인권탄압으로 얼룩졌던 한국이나 제3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보여준 개혁교회, 장로교회들의 희생적이고도 헌신적인 투쟁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절대 권력자들의 권위와 횡포에 저항했고, 이겨냈거나 패배했다. 패배해도 그들은 극한적인 형벌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과 양심을 끝까지 지켰던 것으로 유명하다.⁴⁾ 그만큼 개혁파들은 체념적이고 수동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전취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탄압이나 거친 환경 속에서, 쉽게 물러서거나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안위를 구하기보다는, 단편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의지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성격은 칼뱅 개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고, 그의 교회들이 공유하는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3. 실천보다 앞서 그의 사상: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적 칼뱅

그러나 칼뱅은 정말 행동기적이고, 실천기적였는가? 그렇긴 하지만, 실천에 앞서 하나의 사상, 신학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칼뱅은 생각에 앞서 행동하고,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유형의 행동가는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연구와 생각을 거쳐 정리된 확신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드 베즈는 칼뱅이 죽은 뒤 “그가 직무 첫날부터 선포했던 교리를 하나도 바꾸거나 감하거나 덧붙이지 않고 말하고 쓰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삶을) 거룩한 직무에 바쳤다”고 회상했는데,⁵⁾ 그런 철저한 일관성은

칼뱅은 정말 행동기적이고, 실천기적였는가? 그렇긴 하지만, 실천에 앞서
하나의 사상, 신학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칼뱅은 생각에 앞서 행동하고,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유형의 행동가는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연구와 생각을 거쳐 정리된 확신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단지 그의 교리나 저술만이 아니고, 그의 말과 행동, 삶 전체에 걸쳐 해당되는 것이기도 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확립된 이론, 사상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스토포르는 종교개혁이 중세기의 종교개혁들과 달리, 생활이나 풍속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교의,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역설했는데,⁶⁾ 무티나 쾰빙글리도 마찬가지로 칼뱅에게서 종교개혁은 행동이나 삶 이전에 신화의 문제였다. 종교개혁에 본격적으로 몸을 담기 이전에 이미 그는 “기독교 강요”나 “영혼의 불면”등을 저술한 사상가였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칼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사상을 알아야 한다. 칼뱅의 사상이 그의 행동이나 실천의 이유, 방향, 목적을 결정했다. 칼뱅의 교회나 실천들의 여러 특징들도 결국은 그의 사상에서부터 나온 것들이다. 그래서 그의 사상을 알면 그의 교회와 실천들이 분명하게 이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칼뱅의 사상적 특징은 무엇인가?

그의 저술들을 읽어보면, 그가 매우 신 중심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사 속에서 볼 때도, 일부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자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칼뱅이 신 중심적이라는 데는 큰 이의가 없다고 할 수 있다.⁷⁾ 사실 그의 기독교 강요들이나 방대한 설교들, 성서주석들, 그리고 심지어는 서간문들 속에서도 그의 신 중심주의는 확인된다. 그것을 한 마디로 말해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A Dieu seul la gloire!)”이라는 칼뱅 자신이 애용했던 표현이다. 칼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며, 자신의 모든 사상도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개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신화”였다.

4. 칼뱅의 신의 성격: 초월과 임재의 변증법적 하나님

칼뱅의 사상이 신 중심적이라고 할 때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칼뱅의 하나님이 어떤 성격의 신인가 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리츨이나 체베르크 같은 학자들은 칼뱅의 중심사상을 예정론으로 파악하면서, 그 예정론적 하나님은 “절대권력(potentia absoluta)”의 유명한 문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다.⁹⁾ 즉 칼뱅의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권위적이며, 자신의 의지로써 모든 것을 하는 “전황(Willkür)” 또는 “변덕”의 신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해는 매우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어서, 칼뱅의 신학을 비인간적이고 매력 없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물론 칼뱅의 예정론만을 보고, 또 그것도 문지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예정론은, 그것을 받아들이건 아니건, 그 교리의 역사와 의미를 텍스트와 함께 그의 사상의 맥락을 보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작업이 있다면 칼뱅의 신은 예정론에서라도 그렇게 절대권능의 전황과 심지어는 폭군적인 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¹⁰⁾

오히려 칼뱅의 신은 전능하고, 초월적이고, 절대적이고, 정의의 하나님인 것 하지만, 동시에 내재적이고, 스스로 한계 속으로 들어오시며,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칼뱅의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고, 존귀하며 절대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적으로 다른 질적 차이, 무한한 거리를 갖는다. 그 신은 절대자로서 자신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그 거리를 넘어서 인간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감찰하고, 심판한다. 그러나 칼뱅의 하나님에게는 그런 초월성과 함께 임재성 역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나타난다. 그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참여하고, 이 세상을 채우는 신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들에 충만하시다.”¹¹⁾ “하나님은 만유를 채운다.”¹²⁾ 칼뱅에게서 신의 참여의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신의 완전한 성육신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인간 가운데 있다.¹³⁾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성육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이다.

칼뱅의 하나님은 그런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구분하면서, 편의상 먼저 창조주에 관해 다루고(제1권), 구속주에 대해서는 나중에(제2권) 다루겠다고 했던 것¹⁴⁾

칼뱅의 신은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임재하고,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스스로 제약되고, 정의로우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칼뱅의 신은 그 대립적 양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고 또한 “변증법적”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그의 신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여하고 임재하는 하나님, 그 두 극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는 칼뱅의 신의 그 양극성을 역설 혹은 변증법적 관계로 파악하고 설명한 바 있다.¹⁵⁾ 칼뱅의 신은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임재하고,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스스로 제약되고, 정의로우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칼뱅의 신은 그 대립적 양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고 또한 “변증법적”이라는 것이다.

5. 칼뱅의 신의 양극성에서 비롯된 교리들, 교회적이고 실천적인 특징들

칼뱅의 하나님의 그런 양극적 특성은 그의 사상 전체를 성격화하면서, 또한 그의 교회와 사회에 대한 면까지도 결정하시기도 한다. 먼저 신의 초월적 성격으로부터 보자.

칼뱅의 신학에서, 창조론이나 성리론, 예정론 같은 교리들은 주로 그런 초월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일차적으로 신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권능과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 칼뱅에게서 그런 교리들을 주로 보면, 그의 사상을 수직적이며,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교리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나 예정이라는 은혜로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개혁교회들의 교회와 예배가 전통적으로 거룩하고 엄숙한 것도 칼뱅의 그런 초월적 신 의식으로부터 기인된다. 그 교회들은 성상들이나 장식들을 배제하고, 사람들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각종 기술들이 동원되는 예배나 음악들 역시 버리고, 주로 시편을 비롯한 말씀 중심의 찬양과 예배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위그노나 네덜란드의 “빈민자들” 독일의 고백교회, 제3세계나 한국의 장로교 특

히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보여주었던 독재에 맞선 '투쟁'들도 미천하지이다. 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 돌린다는 갈뱅의 신앙적 후예들이다. 지상 권력이 명백하게 신을 대신해서 절대자의 자리를 취한다면, 거기다가 국민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화를 헤치기까지 한다면 불복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갈뱅은 그 '저항권'을 중간관헌들에게만 인정했지만,¹⁶⁾ 그의 신학을 넓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드 베즈는 그렇게 발전시켰다.¹⁷⁾

또한 갈뱅의 신의 참여와 임재라는 관점에서 그의 신학들과 교회들을 살펴보자. 갈뱅의 하나님의 참여로부터 그의 계시론이나 그리스도론, 성령론, 구원론 등이 비롯된다. 즉 그런 교리들은 세상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고, 또 그 성격을 두드리지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을 주로 보면 갈뱅의 신학은 매우 복음적이고 은혜로우며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그런 교리들 속에서 신의 초월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하자. 가령 신의 내재성이 가장 두드러진 성육신론이나 성령론 같은 데서도 신의 초월성이 무시되지 않고, 여전히 전제되고 있다. 이른바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즘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¹⁸⁾

갈뱅의 교회가 영적 깊이와 초월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구원, 즉 복음이 항상 강조되고 선포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율법적 성향이 강하지만, 원래 개회교회 선포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딸미암는 칭의와 은혜의 구원에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권위적이거나 성직자중심이 아니고 민주적이다. 두메르그에 따르면, 갈뱅의 교회들은 "합의된 계약에 근거한 제도적 교회"로서 모든 신자들은 함께, 목사까지 포함해서 그 계약에 서명했다. 더군다나 갈뱅의 교회에는 성직자제(clerge)가 없다.牧사는 직무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 점에서 민주적이고, 평신도제(laïque)이다.¹⁹⁾

갈뱅의 교회의 사회적 성격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이해된다.²⁰⁾ 갈뱅은 그 자신이 망명자이기도 했지만, 박해를 피해 피난 온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정착과 생활을 돕는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였다. 종교개혁 직후 설립된 시민 병원에서 시에서 금료를 지불하는 의사들을 두어서 가난한 병자들을 치료하도록 했고, 집사들로 하여금 그 병원이 병자들과 노숙인들, 걸인들을 잘 치료하고 수용하는 것을 감독하는 동시에 직접 그 일을 수행하도록 했다. 고리대금업자들이나 대부업자들

갈뱅의 교회의 사회적 성격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이해된다.
갈뱅은 그 자신이 망명자이기도 했지만,
박해를 피해 피난 온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정착과 생활을 돕는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였다.

의 이자율을 제한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줌과 동시에 시민들이나 중상 공업자들, 망명자들의 신임을 원활하게 해주었다. 남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립교육을 실시했던 것이나, 이커테미를 설립해서 제네비와 유럽 각국의 미례의 지도자들을 육성했던 것도 모두 갈뱅의 하나님의 참여의 성격에서 이해되고 설명되는 것이다.

6. 오늘의 한국교회를 위한 갈뱅

현재 한국교회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솔한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직하게 보자, 그 위기는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자초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 나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파악한다. 하나는 세속주의이고, 또 하나는 도피주의이다.²¹⁾

세속주의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혹은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일이다. 한국교회의 물신주의, 물광주의, 권력지향주의, 상업주의나 기술만능주의, 이기주의와 자기파괴욕 같은 것들이 모두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갈뱅은 말할 것이 많다. 무엇이든? 초월적 하나님 신앙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절대화하거나 신성화할 수 없다. 그것은 '우상숭배' 일 따름이다. 갈뱅이 평생 투쟁했던 것은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고, 갈뱅의 후예들도 그 뒤를 충실하게 따랐다. 지금 한국교회들은 어떤가? 최소한 장로교회들이라도 그런 세속주의를 떠나, 순수하게 믿음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도피주의는 세상에는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세상을 등진 채, 자신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된다. 역사의 유기, 패배주의, 분리주의, 신비주의, 열광주의, 사회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부적응 같은 것들인데, 현재 한국교회 모습에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칼뱅 하나님님의 임재와 참여의 신학이 답을 줄 수 있다. 세상과 사회는, 자연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임재하고, 구원하는 곳이다. 그래서 세상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거기를 떠나서, 거기와 별도로 하나님을 추종하는 것은 거짓이다. 사회와 인간에 대한 집중성은 바로 그런 신학에서 가능하고, 오늘 한국교회에 무엇보다 철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회는 장로교이건 아니건, 칼뱅의 신의 그 양극성을 중심으로 한 신학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교회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국사회에서 다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얻을 뿐 아니라, 교회의 참된 성장과 함께 사회의 정의와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도 기여하는 길이 거기에 있다. 그런 까닭에 칼뱅과 그의 사상은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도 여전히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223**

이오강 | 교수는 한신대학교와 연암신학대학원(Th. M.)을 졸업하고 프랑스 몽펠리에-베리신학대학(Dren theol.)에서 공부했다. 현재 그리스도대 조직신학 교수로 있다.

- 1) O. Fatio, "Quelle Ré formation? Les commémorations genevoises de la ré formation à travers les siècles", *Revue de Théologie et de Philosophie*, 118(1986), 125 재인용. A. Picot, *Journal de Genève*, le 17, Juin, 1935.
- 2) E.-G. Lé onard, *Histoire générale du protestantisme*, vol. 1, 1961, 307. R. Stauffer, *La Ré forme*, (Paris: PUF, 1970), 95 재인용.
- 3) Th. de Bè ze, *Vie de J. Calvin*, (Paris: J. Cherbuliez, 1869), 202.
- 4) Cf. 장 카디에/이오강 역, 『칼빈 하나님님』 칼빈인사 람, 207, E. Fuchs, *La morale selon Calvin*, (Paris: Cerf, 1986), 170s 등.
- 5) Th. de Bè ze, op.cit.
- 6) R. Stauffer, *La Ré forme*, (Paris: PUF, 1970), 6.
- 7) *Psychopannychia*를 말한다. 칼빈은 이 책을 1534년 에 이라도 오프레앙에서 지술했으나, 1542년에 가서야 출간한다. 흔히 『영혼의 잠(수면)』이라고 번역되는 이 책의 제목 *Psychopannychia*에 대해 카디에는 "psyché (영혼)"와 "pannychizo(잠을 세운다)"의 합성어로 설명한다. 필자는 카디에에 따라 이를 『영혼의 불면』으로 해석한다. 장 카디에/이오강, 63-64.
- 8) 나이켈, 찰스 파피 같은 학자들은 칼빈의 신학을 매우 철저히하게 그리스도중심적으로 파악한다.

주(註)

한국교회는 장로교이건 아니건, 칼빈의 신의 그 양극성을 중심으로 한 신학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교회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국사회에서 다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얻을 뿐 아니라, 교회의 참된 성장과 함께 사회의 정의와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도 기여하는 길이 거기에 있다

주(註)

- 9) 이 복잡한 논쟁에 관해서는 이오강, 『칼빈의 하나님은 유명론자인가? - 칼빈과 유명론 논쟁』,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2009년 발표 예정.
- 10) 참고 이오강, 『칼빈 예정론의 역사와 신학』, 『목회와 신학』, 1994년 9월 (통권 63호) 285-297, 10월호(64호), 291-301.
- 11) *Institution*, III, 20/40.
- 12) "Sermon sur le livre de Miché e du jeudi, 13e jour de Novembre 1550", *Supplementa Calviniana*, 6 vols. (Neukirchen - Vluyn: Neukirchner Verlag, 1936-1981), V, 11.
- 13) "Se Sermon sur le ch. 4 de Deuteronomie" (1555), *Opera Calvini*, XXVI, p. 152 등.
- 14) *Institution*, I, 2/1, Cf. 6/1.
- 15) 이오강, 『칼빈의 신론: 초월과 양계의 변증법적 하나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5, 2004, 99-126.
- 16) *Institution*, IV, 20/31.
- 17) J. Baubé rot, J.-P. Willaime, *Protestantisme*, (Paris: MA Edition, 1987), 38.
- 18) 이오강, 『엑스틀라 칼바니스티쿰 연구』, 『기독교사상』 420-권(1993년 11월) 80-93, 421-권(12월) 119-136.
- 19) 에릴 두메르그/이오강 역,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p. 121-122.
- 20) A. Bié ler, *La Pensée é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 (Thèse présentée à la Faculté des sciences économiques et sociales de l'Université de Genève, 1959), 156-157, 160, 168-169.
- 21) 참고 이오강, 『한국교회, 존재의 문제와 변증법적 신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09, 4월 2권.